



shalom 장애인선교회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Address: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1-7724 Fax: (323)731-7730

E-mail: shalommin@hotmail.com Website: www.shalommin.com

Mailing Address: P.O.Box 761457, L.A, CA 90076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 14:27)

뉴스레터 제307호

발행인 : 박모세

편집 : 문서선교부

2025년 1월

세월을 아끼라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저의 청소년 시절인 196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말이 생 각납니다. 어떤 뜻에서 그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는데는 모 르지만요. “세월이 좀 먹냐?” 고교시절 당시 저는 “급할 것 없으니 천천히 하라”는 정도로 이해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70대 중 반이 코앞에 다가와서인지 세월이 마치 미사일같이 날아가 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스치는 생각이 이렇게 인생 의 말년을 맞게 될 수도 있겠다는 일종의 절박감으로 다가 옵니다.

I do not know why it was so often used, but I remember there was a popular phrase in the late 1960s when I was a teenager: "Are moths eating up your time?" As a high schooler, I understood it as, "There's no need for haste, so slow down," but I do not think many people would agree with such a sentiment in today's era. With my mid 70s just around the corner, time seems to fly like a missile. A sudden thought flashes through my mind with a sense of urgency: I might be in the latter years of my life.

비교적 젊었을 때에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금년 에는 이런 저런 일들을 해 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년지 계를 세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것들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음 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런 마음이 드는 것은 모름 지기 지난 한해동안 개인 적으로 겪은 고난과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자연스런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말씀이 었 5:16 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When I was relatively young, I used to greet the New Year by making a year-long plan with the intention that I would do this or that. However, perhaps for the first time, I have realized that there is something far more imperative. This may be a natural reaction to the hardships I have personally experienced in the past year and the reality that the world is rapidly changing. The verse that comes to mind is Ephesians 5:16: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장애인 용 의료보조기들을 가득 채운 제48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파라과이 행 컨테이너 앞에서 Posing in front of the container fully loaded with various medical aids for the 48th “Wheels of Love” Project(for Paraguay)

이 말씀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 아가는 사회 각계 각층의 모든 남녀노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신 “세월”이라는 단어 앞 에 정관사를 붙인 것은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신 자들에게 각자의 정해진 일생을 언급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 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악한 세상에서 모든 기회를 최 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 란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 사람들과의 거짓, 위선, 선동, 배 신 그리고 불법 등으로 그 타락하는 속도가 무섭게 빨라짐에

This should not only be applied to the elderly, but also to every man and woman from all walks of life living in this day and age. Putting the definite article “the” in front of the word “time”—mentioned by Apostle Paul—refers to a set time. In other words, because we believers are called to use our time wisely, we must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to pursue God’s purpose in this sinful world. This is because the times are evil. Even to me, the world is wicked and dangerous as people's propensity for depravity escalates at an alarming rate due to falsehoods, hypocrisy, incitement, betrayal, and lawlessness.

Apostle Paul goes on to say that it is spiritual wisdom to know and understand the will of God through the

따라 세상은 갈수록 사악하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고하십니다(17절). 오늘날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며 무엇에 취해 있느냐입니다(18절). 갈수록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들만 유혹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요일2:16)에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도 기이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 변질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티화나에 위치한 예향교회에서 성탄예배 후 성도들과 기념 촬영하는 김애영선교사 /Mrs. Ae Young Kim, the missionary to Mexico poses with the members of Yehyang Church after Christmas worship service, which is located in Tijuana

이 시대를 보면 마 25장에 기록된 다가올 심판을 유념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볼때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에 잘 출석하며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본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경력도 괄목할만하고 말씀도 잘 알지만 행함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분들의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2:26). 이런 분들의 결국은 양으로 분류되는 오른편이 아닌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마 25:41~46).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물질과 각종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런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성령에 충만함으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도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박모세 목사

Word(Verse 17). Nowadays, children and adults alike live busy and hectic lives. It appears as if there is not a single person on this earth who is not busy. The question is this: What are we busy with and what are we drunk on (Verse 18). We are increasingly oblivious to how immense and strong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are. Young people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tempted. Everyone has his own temptations. Satan is the medium of the world, driving us away from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instead leading us to obsession with the things of the world (1 John 2:16). Since the pandemic, churches and believers have changed to a discomfiting extent, not to mention the altered state of the entire world. Even still, they continue to deteriorate.

Looking around, I am reminded of the final judgment written in Matthew, chapter 25. From the outside, it seems like many people still attend church and do well in their faith, but in truth, there is often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ir lives and that of the rest of the world. There are so many nominal Christians who profess to believe, attending church for a long time and possessing a great deal of knowledge about the Bible, but their lives do not bear fruit. The apostle James says this kind of faith is dead (2:26). They will eventually be revealed to belong to the group of goats on the left, not to the sheep on the right (Matthew 25:41~46).



휠체어 장애인들과 기념촬영하는 잠비아 김수경선교사
Mrs. Soo Kyung Kim, the missionary to Zambia pose with the wheelchair-users

In His wonderful grace and mercy, God has given us an opportunity. It is the time He has granted us. It is our health, belongings, and the various talents we enjoy. How well do you make use of these opportunities for the glory of God? Therefore, a life that makes the most of time is one that is not preoccupied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but rather avoids wastefulness and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new year has dawned. How are you going to live in 2025!

Moses Park



회원코너 (1)

Dear 평생친구 성철에게,

친구야, 우리가 어느새 옛 우리 어머니들의 연세가 되어 이젠 완전한 노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라는 말씀처럼 내게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일어난, 말로는 다 표현이 안되는 극치의 사건에서도 너를 건져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셨음을 누가 알았을까?

너는 그 분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육신의 아픔도 인내하며 잘 견디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네가 늘 자랑스럽고 내게는 믿음의 본이 되어 힘이 되는 존재임을 고백해. 여기까지 너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롬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디 건강하기를 바라며 귀한 친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72세 생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친구 옥희가 밀워키에서



박성철 사모의 72세 생일을 축하하는 직원들/ The Ministries' staffs congratulate Mrs. Park on her 72nd birthday at a restaurant



2025년도 1월의 기도제목

- ❖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 ❖ 새해에 본 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 연약한 본 선교회를 통해 세계장애인선교의 지경이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 ❖ 12월 하순에 선적한 제48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파라과이행) 사업과 제49차 사업 (에스와티니행)이 목적지에 각각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 ❖ 겨울철 장애인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 ❖ 살롬사역을 후원하는 지역교회와 단체와 개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새로운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동참을 위하여
- ❖ 본 선교회 직원들과 이사 회원들을 위하여



Members' corner (1)

Dear my lifetime friend Sung Chil,

Here we are, having reached the age of our mothers, now fully living in the world of old age. Just as the Scripture says,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John 10:10), who could have known that God had a greater purpose in delivering you from those unspeakable and extreme trials brought about by the power of the evil, using you as an instrument to lead so many souls to the path of life?



“남편은 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 “난 당신의 종(벨)입니다”
“My husband is the best gift” – “I am your servant(Bell)”

I admire how you have surrendered to His will, entrusted everything to Him, and endured every physical pain with patience, living solely by faith as you look to and rely on God. You are always an inspiration to me, a role model in faith, and a source of strength in my life. I am deeply grateful to God for keeping and protecting you this far, and for guiding you to be used so precious for Shalom ministry. I sincerely pray for your health and give thanks to God for bringing such a precious friend into this world. Wishing you a truly blessed and joyful 72nd birthday!

Katie O. Sherman, From Milwaukee



Prayer Requests for January

- ❖ We give God thanks and praise for granting us another New Year as a gift
- ❖ for our Ministries to carry out the mission entrusted to us in His good will in the New Year
- ❖ for the mission boundary to further expand in the global disability communities through a weak vessel like our Ministries
- ❖ for the containers related to the 48th Wheels of Love Project (for Paraguay) and the 49th Project (for Eswatini) shipped during latter part of December to be transported safely to the destinations
- ❖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disabled in the winter
- ❖ for the churches, organizations and saints that supporters and volunteers to join the disability ministries
- ❖ for the Ministries staffs and the board members



사역 활동 및 샬롬 소식

- ❖ **지역 교회 사역:** 박모세 목사님이 12월 15일(주일) 남가주 은혜선교교회(김창곤목사)에서 교회창립3주년을 기념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문 - 올림픽장로교회(이수호목사), 나성한인교회(신동철목사), 오렌지 가나안장로교회(김인철목사), 남가주 샬롬교회(김준식목사), 토렌스조은교회(김우준목사)
- ❖ **성탄절 선물나눔:** 2024년 성탄절기에도 본 선교회 이사이신 최동철장로님 가정에서 25년째 성탄절 선물(담요 80개)을 기증해주셔서 12월 12일(목)에 2025년 달력과 함께 회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 **성탄감사예배:** 12월 19일(목)에 남가주 든든한교회 김홍철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2024년 성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 ❖ **송년감사예배:** 12월 26일(목)에 코너스톤교회 이종용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CPT 찬양팀의 수준있는 찬양과 함께 2024년 송년예배로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본 선교회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암투병 중에도 샬롬의 송년예배시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용목사님
 Even while fighting cancer, Rev. Jongyong Lee preaches the Word during the year-end service at Shalom



감사의 말씀

- 1) 12월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광세목사님, 김홍철목사님, 이종용목사님
- 2) 12월에 찬양을 인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영철 목사님 외, 줄리곽 집사님의, 김미선 목사님 외
- 3) 12월에 목요일예배를 위해 식사나 과일 혹은 간식을 제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릴리온교회, 브라이언 김 집사님 가정, 남가주 든든한교회, 코너스톤교회, 풍성한 과일, 파리바게트
- 4) 12월 목요일예배를 위해 식탁봉사, 차량봉사, 미용봉사 그리고 한방치료를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5) 12월에도 샬롬사역(국내 및 해외)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지역교회와 모든 후원자들에 감사드립니다



Ministry Activities & Shalom News

- ❖ **Local Church Ministry:** On the occasion of the 3rd anniversary of the church, Rev. Park was invited to preach the word on Dec. 25th at Namgaju Grace Mission Church.
- Visits** - Olympic Presby. Church, LA Christian Presby. Church, Canaan Presby. Church of OC, Shalom Church of S. Cal., Good Community Church of Torrance



목요일예배시 특별찬양을 부르는 갈릴리온교회 이광세목사님과 성도들
 Rev. Kwang Sei Lee, the pastor of Galilee Grace Church and church members present special music during Thursday service

- ❖ **Christmas Gifts Sharing:** Mr. Dong Cheol Choi, the board member donated 80 pcs of good quality blanket for our members for the 25th consecutive year even this Christmas, which we distributed to our members on Dec. 12th (Thu) along with 2025 calendars.
- ❖ **Christmas Worship Service** was held on Dec. 19th (Thu) with Rev. Hong Cheol Kim, the pastor of Solid Rock Church as the guest speaker.
- ❖ **Year-End Worship Service** was held on Dec. 26th (Thu) with Rev. Jongyong Lee, the Pastor of Conerstone Church as the guest speaker. And the members of CPT presented inspiring music. We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for having led our Ministries for the past year.



We Give Thanks to

- 1) those who preached the word in Dec; Rev. Kwang Sei Lee, Rev. Hong Cheol Kim, Rev. Jongyong Lee
- 2) those who led praise & worship in Dec; Rev. & Mrs. Young Cheol Cheong, Mrs. Julie Kwak & others, Rev. Miseon Kim & others.
- 3) those who provided dinner, fruit or snack in Dec; Galilee Grace Church, Mr. Brian Kim, Solid Rock Church, Conerstone Church, Hanmi Fruit, Paris Baguette
- 4) those who volunteered to serve the table, give rides, do hair, or treat the members with acupuncture in December.
- 5) those who supported our Ministries with prayer and financial support in December.

회원동경

- 1) 장애인 이현경집사님이 화장실에서 또 넘어져 무릎뼈가 골절되어 응급으로 입원하여 12월 11일(수)에 5번째 무릎수술을 받고 회복중입니다.
- 2) 장애인 최순철형제님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 3) 샬롬의 충성스런 후원 동역자 주디 존스자매님이 암투병 중 고통없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 4) 발달장애회원 김리사자매님이 암투병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embers' News

- 1) Mrs. Hyun Kyung Lee, the disabled fell in the bathroom to fracture her knee again. She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on emergency to undergo a surgery for the 5th time on Dec. 11th, and is now recovering.
- 2) Brother Soon Chul Choi, the disabled has lately been to the hospital due to worsening health condition.
- 3) Mrs. Judy Jones, who is one of our most faithful supporters has been fighting against her cancer, and asked us to pray for her to enter into heaven without pain.
- 4) Miss Lisa Kim,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fighting her thyroid cancer.



다카에서 성탄절 행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우들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te in the Christmas event in Dhaka



암투병하는 사랑하는 리사 자매님
Our beloved sister Lisa, who is fighting cancer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로템나무장애인 학교에서는 오랫동안 학부모들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장애인 어린이들이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낼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16일에는 다카 주일학교 성탄 선물 나눔을 시작하여 현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와 시골지역 10개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주변에 이슬람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성탄선물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시골지역 성탄행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방글라데시 홍두석 선교사

Letter from the Mission field

Dear Rev. Park,

At the Rodem Found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 recently went on an outing with the parents after a long time.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incredibly happy. Please pray that these children may continue to experience joy in Jesus.

On December 16, we began distributing Christmas gifts to children at the Dhaka Sunday School, and we extended sharing to children of the nearby schools run by local churches and in 10 rural churches, including children from Muslim families, for the sake of spreading the love a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Starting next week, Christmas events in rural areas will continue.

Doo Seog Hong, missionary to Bangladesh



Stories of Shalom

김 명 속 전도사 (Myoung Sook Kim, Asst. Pastor)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변화무쌍(빠르게 변한다는 뜻)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험난하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일이라도 담대하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후원자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간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선물 받고 신기한듯 바라보는 모습 / A disabled person who cannot use her legs looks on in wonder after receiving a new wheelchair as a gift in Uganda

저에게는 연세드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새해라서 가족의 4대가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설 떡국을 먹고 어머니께 세배도 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이 어찌 그리도 감사한지... 내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믿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롬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장애회원들을 천국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안에서 새해를 맞고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는 부모님이 모두 천국에 가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새해가 되면 목사님과 사모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두분에게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세뱃돈을 주시는데 받고는 얼마나 좋아하며 사랑을 하는지... 그분들에게 살롬은 집과 같다, 살롬이 있어서 살맛이 난다, 살롬에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살롬은 가족과 같다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은 우리 회원들을 더 잘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A year of many events, highs and lows, have passed and we have begun a new year. The world is changing ever so quickly. The world we live in is full of treacherous, unstable,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lurking. Despite this because God is our Father who is in control, leading us through we can live courageously. Our dear ministry partners, I am praying and cheering for you to live while holding tightly to God's hand.



장애인들에게 성탄선물을 전달하는 엘살바도르 황병철선교사님
 Rev. Hwang, the missionary to El Salvador delivers the Christmas gifts for the disabled

I have an elderly mother. How thankful I am, to have 4 generations gather on the New Year's Day together to worship the Lord, give thanks, eat rice cake soup, perform new year's bow, and enjoy our morning together. I am just thankful that God has give me a safe haven of a family who can pray for each other and share the joy and sadness of our lives together. **Not only that, but Shalom has also been a blessing, a faith community where we consider the disabled members as heaven's family, embrace, comfort, encourage each other and enjoy the new year in the Lord, together.** We have a few members whose parents have gone to heaven, they think of our Pastor and his wife like their parents and give them the New Year's bow. Then our Pastor gives them the new year's gift of money and they enjoy that so much and brag about it. They say **Shalom is like their home, they enjoy life because of Shalom, their heart is comforted when they come to Shalom, and Shalom is their family.** The staffs of

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또 우리 샬롬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로 힘을 더해주시는 중보기도팀 권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권사님들이 모여 샬롬의 여러가지 사역과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지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 몸이 불편하신데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샬롬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욥기 42: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한 욥처럼 우리 기도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가운데 기도의 열매와 응답을 주시니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요. 새해에는 기도에도 더욱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러나라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15개국15분의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많은 나라의 장애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될런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과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붙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세계 장애인들을 섬기게 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지치 않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확장을 위해서 후원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힘을 내는 삼백예순 다섯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다 이루시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 10)



한 해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에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기도의 용사들
The prayer warriors of Shalom who devoted themselves to the intercessory prayer every Friday morning for the past year

Shalom are even more resolved to serve them better with the strength of the love God provides.

I am so well-supported by the intercessory prayers of the deaconesses of Shalom. Every Friday morning deaconesses get together and pray earnestly for many ministries, all the missionaries, nations, people groups, church, family, and individuals, even though their bodies are not able. Their prayers are the source of strength by which Shalom Ministry's influence have been expanding and we were able to handle many ministry. **“I have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y eye sees You (Job 42:5).** As Job had confessed, every time our prayer team prays, God, by His good will gives us fruit and answers, I am so encouraged and thankful. I need to devote more effort into praying.



제49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에스와티니행) 관련 컨테이너에 의료 보조기를 가득 싣는 거래처 관계자 / The loading specialist who fills up the container with the medical aids related to the 49th **Wheels of Love Project(for Eswatini)**

This year we will be working together with many missionaries to serve 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last year we partnered with 15 missionaries of 15 nations. This year, we are preparing ourselves with prayer to serve more missionaries of more nations and more disabled people. **My heart is beating faster thinking about serving more disabled people of the unreached people groups through the missionaries God has given us. God's kingdom will expand that much more, and God will be pleased more.**

I hope you, the partners of our Ministries, together with us will gather our efforts for the three hundred fifty-six days. I pray for all of you to have a healthy and blessed year, making all of your hopes in the Lord come into fruition.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Ephesians 2:10)



회원코너 (2)

박모세 목사님과 사모님,

사모님을 돌보시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또한 세계선교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시는 기금모금 행사도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항상 기도는 하지만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두분의 건강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박정윤 드림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컨테이너 앞에서
 Posing in front of the container for Wheels of Love Project



회원코너 (3)

존경하는 박목사님께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헌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먹지 못하니까 손이 떨려 글씨도 엉망이네요. 시편 90편 말씀처럼 살만큼 살았으니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 밖에 없어요.

저의 남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녀도 친구도 없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우울증 걸리지 않게 혼자 사는 것 잘 적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주디 존스



Members' corner (2)

Dear Rev. and Mrs. Park,

I deeply respect you, Rev. Park, for caring for Mrs. Park while also dedicating yourself to ministr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annual fundraising events you organize for overseas missions are truly precious acts of ministry. Though I always keep you in my prayers, I am sorry that I haven't been able to offer more help. I pray that both of you will continue to enjoy good health and peace, prospering in the Lord.

Helen Park



Members' corner (3)

Dear Rev. Park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prayers you have offered for me. It seems that this will be my last offering. I haven't been able to eat, so my hands tremble, and my handwriting has become quite messy. Like the words in Psalm 90, I have lived the years allotted to me, and I have nothing but gratitude to God.

Please pray especially for my husband. He has no children, no friends, and struggles to connect with others. Please pray that he won't feel lonely or isolated, that he won't fall into depression, and that he can adjust well to living alone. Let's meet again in heaven.

Judy Jones



존스 부부가 후원하여 건축된 부룬디의 가툼바-샬롬장애센터
 Gatumba-Shalom Disability Center built
 with the support of Mr. & Mrs. Jones

본 선교회 후원 방법 / How to Support our Ministries

1



Payable to: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2

venmo

Payable to: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3

PayPal

Payable to:
 shalommin@hotmail.com